

선박건조수리업 화재폭발 재해예방

박병영*, 성대현, 권혁면, 김진환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¹전남대학교
(park319@kosha.net*)

여러 직종의 근로자가 제한된 공간내에서 도장작업, 화기작업, 고소작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조선업종은 작업통제가 어렵고 재해발생율이 타 업종에 비하여 매우 높다. 특히, 긴 통로, 구획되지 않는 좁은 작업장소, 밀폐공간이 많은 선박의 내부에서 도장작업이나 화기작업 시 발생하는 화재·폭발재해는 물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화재·폭발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예방대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2001년 ~ 2005년 까지 5년간 조선업종에서 발생한 210건의 화재폭발 재해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반복해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유형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Air Jacket에 공기대신 산소를 잘못 공급하여 발생한 화재·폭발 재해, 밀폐공간에서 도장작업과 화기작업 병행으로 인한 화재·폭발 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안전보건상의 기술지침 제정시 반영하므로써 조선업종에서 화재·폭발 재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